# 일신 우 일신

日新又日新(일신우일신)
사서의 하나인 대학(大學)에 나오는 용어로 '매일 매일 새로워지라'는 말입니다. 일신중학교 학생들이 '나날이 새로워지고 더욱 더 발전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일신중학교 대표전화062-605-6600 발행·염옥의 교장선생님 지도·김진구 교감선생님 제작·일신중 역사신문 동아리 2020년 11월 9일 월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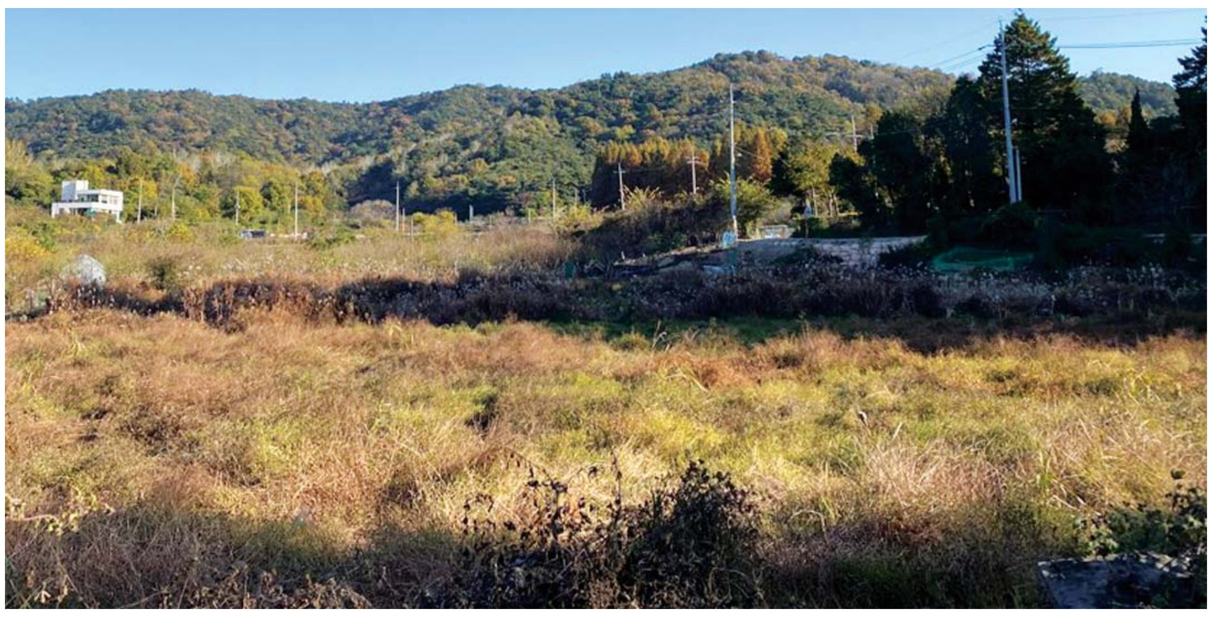

# 삼각산은 알고 있다…부자가 함께 총을 든 까닭을

〈아버지와 아들〉

### 학교 뒷산 삼각산서 의병 일으켜
### 나라 지키는 싸움에 목숨 바쳐
### "일신 학생이여, 다시 뜻 세우자"

아버지 양진여 의병장

아들 양상기 의병장



1908년 일본의 침탈에 맞서 양진여 의병장이 거병한 광주 북구 삼각산. /추다인 기자 (2학년 6반)

"내 바라는 한 뜻은 왜적 무리가 이 땅에 침노하여 생긴 잡초의 악독을 제거하려 함에 있다. 생사를 함께 하며 의혈을 맺을 동지를 구하노라."

우리 일신중학교 뒷산인 '삼각산'에서 한말 의병을 일으킨 양진여가 의병을 모집한 까닭이다.

양진여는 한말 의병장으로 활동한 독립운동가이다. 그는 1908년 음력 6월 중순 의병을 모집하는 격문을 돌렸다. 30여명이 모여들었다. 같은 달 하순 삼각산 죽청봉으로 의병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출병식을 가졌다.

앞서 양진여는 담양 삼인산에 초옥을 짓고 밤이면 병서를 읽고 낮에는 무예를 읽혔다. 1904년 담양군 대전면 갑향골에 주막을 차렸다. 이후 광주를 비롯해 장성·담양 등 무려 10곳으로 주막을 넓혀갔다. 주막은 의병을 일으키기 위한 군자금 조달처이자, 일본군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 제공처였다.

양진여 의병부대는 광주 삼각산을 근거지로 삼아 추월산 일대 담양, 창평, 장성 등지에서 활동했다. 일본 헌병대를 공격하여 전과를 올린다.

그러나 일본군 광주수비대장이 대규모 부대를 이끌고 의병 토벌에 나서게 된다. 양진여는 맞서 장성군 비치에서 격전을 펼쳤으나 무기의 열세로 수십명이 죽는 피해를 입는다.

다시 한 번 군자금 조달 및 의병 양성에 노력하며 때를 기다렸고, 인근 의병장 김태원이 지원을 요청하자 50명의 의병을 파견해 일본군을 물리치는데 도움을 준다.

아들인 양상기도 의병장이었다. 양상기는 1883년 의병장 양진여와 박순덕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세운 담양 풍암정에서 심신을 닦으며 호연지기를 키웠다. 20대 초반에는 대한제국의 군대였던 진위대 병사였다. 1907년 일제에 의해 진위대가 해산되자 고향으로 내려와 광주경찰서에서 순사로 근무했다. 아버지가 의병장인 사실이 알려져 1908년 4월23일 광주경무서 순사 직에서 쫓겨났다.

그는 부친인 양진여보다 두 달 앞선 1908년 5월, 40여명의 의병을 모아 일어섰다. 1908년 11월에는 전남지역의 의병들이 담양군 대전면 한재 부근으로 모였다. 의병장들이 연합하여 가장 큰 걸림돌인 일본 광주수비대를 섬멸하기 위한 것이었다.

연합작전에 참여한 의병은 양진여 300여명, 양상기 200여명, 영광에서 온 전해산 300여명 등 900명이 넘었다. 그런데 일본 광주수비대가 선제공격을 시도했고, 연합의병대는 11월 23일부터 12일동안 전투를 벌였다. 격전 끝에 일본군에 큰 피해를 입혔으나 결국 작전은 실패 및 보류되었고 양진여도 총상을 입는다.

이때 일제가 남한대토벌 작전을 실시하여 전국의 의병들을 잡기 시작해 1909년 8월 25일 은신처였던 갑향골 주막 주변을 일본 헌병대의 가지무라 중위가 습격했고, 양진여는 그곳에서 체포되었다.

재판에서 교수형을 선고받고 1910년 5월 30일에 형이 집행되어 순국한다. 죽기 전에도 나라를 구하겠다는 뜻을 이루지 못함에 슬퍼했다.

양상기도 54차례의 전투를 벌이다 1909년 12월에 체포됐고, 사형이 확정되어 1910년 같은 감옥에서 순국한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교수형을 당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양진여의 공적을 인정해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으며, 아들 양상기도 1977년 건국포장 추서에 이어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해 그의 공훈을 기렸다.

나라를 지키는 정의로운 싸움에 아버지와 아들이 목숨을 내놓았다. 그런데 우리는 이분들의 이름도 모른다.

학교 뒷산 삼각산은 알고 있다. 부자 의병장 양진여와 양상기의 나라 사랑과 정의로움을. 일신의 학생들이여, 이분들의 의기를 다시 세우자. /강세현 기자(2학년 4반)

## 일신 툰 최효린 (2학년 3반)

# 의병장 아버지와 아들, 신안다리에서 다시 만나다

**의병의 길…서암로와 설죽로**

### 서방사거리~동운고가 '서암로'
### 신안다리~일곡지구 '설죽로'
### 순국 98년만에 신안다리서 상봉
### 표지석 하나없어 아쉬움 커

아버지 도로(서암로)와 아들 도로(설죽로)가 만나는 신안교 삼거리. /추다인 기자 (2학년 6반)

과거 나라를 지킨 의병장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라도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시작이나마 우리 학교 주변에서 활동한 의병장의 삶과 역사의 흔적이라도 알아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백마산 중턱 양지 바른 곳에는 일제에 맞서 싸우다 목숨을 바친 아버지와 아들의 묘가 있다. 바로 부자(父子)의병장인 아버지 양진여와 아들 양상기 의병장의 묘다.

양진여 의병장은 1860년 광주시 중흥동에서 태어나 광주 북구와 담양, 장성 일대에서 활약했다. 양상기 의병장은 1883년 태어나 화순 동복 일대에서 활약했다. 일제의 남한대토벌 작전 당시 체포돼 부자가 1910년 대구 감옥에서 갇혔고, 두 달 간격으로 교수형에 처해졌다.

양진여·양상기 의병장은 아버지와 아들로 함께 의병 활동을 했고, 함께 숨졌다. 부자가 함께 처형된 사례는 흔치않은 일이다.

양진여·양상기 의병장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양진여 의병장의 손자 양일룡씨가 1971년 우여곡절 끝에 부산교도소에 보관돼 있던 '양진여 판결문'을 찾아내면서 부터이다.

이들 부자의 뜻을 기리기 위한 추모 도로가 있다. 서암로와 설죽로다. 이 분들의 호가 서암과 설죽이다.

양일룡씨는 1987년 4월 광복회 전남광주연합지부 명의로 할아버지 아호를 딴 '서암로' 지정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1992년 10월 29일, 광주 서방사거리에서 전대사거리를 거쳐 동운고가까지의 도로를 한말 의병장인 양진여의 호를 따 '서암로(瑞菴路)'라 했다. 서암로의 길이는 총 3.2㎞이다.

2008년 11월17일, 아들 양상기 의병장을 기리기 위해 신안 제1교에서 북구 일곡동까지의 도로를 그의 호를 따 '설죽로(雪竹路)'라 이름 지었다. 설죽로의 길이는 총 5.25㎞이다.

서암로와 설죽로가 만나는 곳은 신안교다. 아버지와 아들은 의병장으로서 순국한 지 98년 만에 신안다리에서 만난 것이다.

하지만 이 곳에는 이들을 기리는 표지석 하나 없다. 이 도로가 생긴 배경에 대한 설명간판이나 표지석이 없으니 이들의 나라사랑을 알 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안타깝다.

양진여 의병장의 증손자인 양규철씨는 "모든 걸 제쳐두고 나라를 위해 앞장 선 이분들의 희생이 잊혀지지 않게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추다인 기자 (2학년 6반)